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 중 임상실습 경험 : 질적내용분석

홍은희^{1*}

¹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COVID-19 Situation: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Eunhee Hong^{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어떠한 지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COVID-19동안 현장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을 질적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이다. 연구결과,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 '먼지와 같은 존재감',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 '예비간호사로의 성장 계기'의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결론: 임상실습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상호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임상 실습 중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원만한 산학협력을 통해 임상실습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디브리핑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교육 컨설팅, 코로나, 임상실습, 질적내용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erforming clinical practice under the pandemic situation of COVID-19. As for the research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pen questionnaires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experienced field training during COVID-19. The collected contents ar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studies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sis techniques. Four themes emerged from the participa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during the pandemic: 'psychological burden increased by COVID-19', 'treating like a nobody', 'discover the charm of clinical sites', 'opportunity to grow into a pre-nurs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students through sufficient information and smooth interaction before clinic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self-esteem by frequently checking specific guidance on what should be considered as a focu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students' difficulties.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ontinue clinical practice through smooth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self-reflect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ebriefing.

Key Words : Nursing, student, Educational Consulting, COVID-19, Clinical Practic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Hong(ehong@snjc.ac.kr)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research funds at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in 2021(snjc2021-010)

Received April 15, 2022

Revised May 3, 2022

Accepted June 24, 2022

Published June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가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2020년 3월 12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국내에 COVID-19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23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COVID-19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관리청(KCDC)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주의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1]. COVID-19는 계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예방백신의 한계가 있으며[1], 이에 따라 비대면 활동 또는 자발적인 자가 격리가 증가하였다[2]. COVID-19의 팬데믹 상황은 단계적 상황에 따른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간호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이론 교과목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실습교과목은 교실 실습, 제한적인 임상실습 등으로 대체되었다[3].

간호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상실습 1,00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기에[4] 임상실습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또한, 간호학에서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중요한 교과목이며[5], 간호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실제 간호 실무현장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6].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배우며, 간호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관 정립에 영향을 받는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8]. 더욱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많은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9].

질적 자료분석 방법 중 하나인 Graneheim과 Lundman이 제시한 면담자료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은 서면화된거나 구술된 자료를 유사한 의미단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객관적, 체계적 파악을 통해 추론을 내리는 연구방법이다[10,11].

이에 본 연구는 질적내용분석방법을 통해 COVID-19의 팬데믹 상황하에 임상실습을 완수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어떠한지 이

해하고, 이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상황 하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을 이들의 관점에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문제는 “ COVID-19 상황하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내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 속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지를 이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질적 내용분석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소재한 간호학과 3, 4학년 중 COVID-19동안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별 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3학년 30명, 4학년 30명을 선정하였다.

2.3 자료 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21년 7월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교수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전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방법,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정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 책임자의 연구실에 자료파일로 비번을 설정하여 보관하였다. 연구관련 문서는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되 다른 법이나 규정에 의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중도 탈락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대해 서면동의 한 학생들에 한하여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를 하였다. 설문지는 반구조화된 질문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본 추출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경험을 진술해 줄 수 있는 참여자 모집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계제를 하였다. 대면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정부 방침이 강화되어서 추가 면담이 어려웠다. 이에 20명의 연구대상자를 학년별 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3학년 30명, 4학년 30명으로 확대 선정하였다.

주 질문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 속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보조 질문

① 임상입상실습 전 불안하거나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② 임상입상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③ 임상입상실습으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④ 임상입상실습 중 아쉬웠던 점 혹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⑤ 임상입상실습에 대한 느낌(중요성, 필요성)은 어떠했나요?

⑥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실 내용 있나요?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Graneheim과 Lundman [10]의 질적 내용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입장에서 임상실습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여러번 반복하여 읽었다. 둘째, 전체분석, 초점분석, 행간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의미있는 단어, 문장 등을 추출하였다. 셋째, 유사한 개념끼리 분류하고 지속적 비교하였다. 넷째, 여러 개의 공통된 의미단위(meaning unit)을 포함하는 주제와 하위주제로 구분하였다.

2.5 연구 타당성 확보 및 연구자 준비

연구 현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민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공부하였다. 또한 무지(not-Knowing)의 상태를 훈련하기 위해 내러티브 리서치 워크숍 과정, 내러티브 재구성 상담연구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질적연구학회의 평생회원으로 지속적인 질적연구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독립성에 기반을 두어 연구의 엄격성을 따르고[12, 13],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자 반복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질적연구 수행경험이 있는 박사들의 검토 및 토의를 수행하여 반영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였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에서 외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 결과를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타당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 30명, 4학년 30명으로 총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회신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 명확한 지 확인작업을 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고, 그 연구 결과의 도출과정의 명확성, 논리성 유지를 확보하며, 일관성있게 나오는 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에서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의 중심의미가 발췌되고 구조가 어느 정도 도출되는 가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들과 토론하여 연구결과를 수정함으로써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독립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의 하나인 괄호 치기를 하였다. 연구 실행 전에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를 먼저 검토해 보고, 연구자의 편견이 연구 결과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 중 임상실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설문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1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Table 1). 도출된 주제는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 '먼지와 같은 존재감',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 '예비간호사로서의 성장 계기'이었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COVID-19 상황 중 임상실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

COVID-19로 수업을 주로 비대면으로 경험한 대상자들은 임상실습을 대면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첫 실습에 대한 불안, 긴장감 등을 가지게 되었다. 여전히 COVID-19로 임상실습 전이나 실습 중에 대한 제한된 생활환경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받게 되고 이는 더욱 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Table 1. Experiences on the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Pandemic

Themes	Subthemes
psychological burden increased by COVID-19	Pressure on excessive restrictions, Lack of confidence due to poor skills, Atrophy aggravated by negative information
treating like a nobody	a series of Nunchi, a disappointing clinical practice
discover the charm of clinical sites	a vivid field experience, rapport with patients, familiarity is confidence
opportunity to grow into a pre-nurse.	milestones found at the scene, time to find your aptitude, reflection of deficiency

3.1.1 과도한 제한 사항에 대한 압박감

임상현장은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경험의 기회의 장소이지만, 환자를 돌보는 장소이기에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엄격한 기준을 제시받고 이를 지킬 수 있어야만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병원의 기준은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수시로 강화되어 실습 나가기 전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입받은 채 실습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간호대학생은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집으로 귀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분위기에 압도당하였다.

“실습나가기 전에 병원 OT를 받을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참 많았어요 편의점 가지 마라, 교회가지 마라 등. 매일 간호부에 보고하는 것도 힘들고...”

“실습전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 맞추어 받아서 결과를 내야 하니까”

실습 중에도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많이 있고, 특히 실습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까 걱정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성적이 불이익이 있을까봐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다.

“병원 출근해서 체온 측정하고, 퇴근할 때 체온 측정하고... 식사 자리 기재하고...그런 것들을 매일 하고 보고 하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실습 나가면 치료는 어떻게 받을지 걱정이 되요.”

3.1.2 부족한 술기능력으로 인한 자신감 하락

코로나 사태로 인해 2학년부터 온라인 실습을 주로 했고, 기본간호학실습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실습을 진행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컸다. 실습 직전 집중 교육을 통해 술기를 경험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자신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가장 기본적인 주사기 잡는 법, IV 하는 법 등의 기본 술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온라인 동영상에만 의존하여 공부 후 현장실습을 가는 것이”

“2학년 때 코로나로 인해 기본간호학 술기를 교내 실습실에서 충분히 익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직접 환자들을 대할 때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되었다.”

특히, 병원에 나가서 활력징후 측정은 기본인데, 수동 혈압계 사용에 대한 숙달이 안되고, 부족한 술기를 연습할 공간도 시간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본간호학실습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실습을 진행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병동에서는 자동 혈압계도 사용하지만 수동 혈압계도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연습할 때는 잘 들린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탈 특히 혈압을 못 잴까봐... 기본간호실습을 몰아서 해서 당시에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시험도 구술평가로 해서... 지금도 기본간호술기 연습시간이 부족했던 게 매우 아쉽고.”

3.1.3 부정적 정보로 인해 가중된 위축감

현재의 4학년도 임상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습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학생들이 주로 소통하는 창구는 에브리타임이라는 학교 커뮤니티로 여기에 질문을 하면 졸업생이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답글을 달아 주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하였다. 에브리타임에 적힌 글을 읽고 임상실습에 대한 위축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눈치만 보다가 왔다.’ 다들 바빠서서 말 걸기도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과거에 선배의 실수로 인하여 특정 실습지에서 우리 학교 학생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무섭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실습학생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거나 일부러 배척한다는 경험담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어”

학교 커뮤니티 뿐 아니라 뉴스나 가족으로부터도 우려의 말을 들어야 했다. 간호사의 태움으로 자살했다는 뉴스, 코로나로 지쳐서 간호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다는 이야기 등 연일 안 좋은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에브리타임에 적힌 후기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충분하였다. 임상 실습 중 폭언, 폭행에 2주 동안 시달려도, 실습생이라 눈치보여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 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있어도 선뜻 여쭙보기 힘들 것 같았다.

“가족 주변 어른들, 인터넷에서 접하는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엔 상식이나 개념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같은 학교 실습생 중에 환자에게 폭언을 듣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도”

3.2 먼지와 같은 존재감

많은 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도착한 임상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히려 귀찮은 존재 혹은 이방인 같이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 신분이기에 체계적인 임상 교육을 기대하였지만, 현실은 눈치껏 알아서 자신을 챙겨야 하며,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입원 등의 제약으로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아쉬움을 간직한 임상 실습이었다.

3.2.1 눈치의 연속

언제가 바쁜 시간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의 연속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간호사들의 성향이 틀리기에 어디에 기준을 뒀야 할지 막연하기만 한 상황이 임상 실습 중 지속되었다. 전담간호사가 있다면 의문이 생기거나 따라다니면서 관찰할 기회가 많았을 것 같지만, 현실은 눈치껏 따라 다녀야 했다. 잠깐이라도 병동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을 보려고 해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볼 수 없음을 경험하였다.

“선생님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시다보니, 여기서 칭찬받았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되어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할까봐, 서있다 가도 혼날까 하는...”

“병동에 도착해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눈치보며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상황이 상상되었기 때문에...”

3.2.2 실망스러운 임상실습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할 기대와 달리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가 없었으며, 직접 환자를 접촉하는 것도 제한을 두기도 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의 경우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병동 출입을 제한하는 병원도 있었다. 이런 경우 간호사실에 서만 있거나, 심부름 하는 정도로 실습이 끝나기도 하였다.

“임상 현장에서 실습하면서 다양한 걸 배우지는 못 하고 정해진 일만 하고, 그 외엔 선생님을 자체적으로 눈치보면서 따라다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내가 갔던 병동은 V/S만 했어서”

“아무래도 산모분들이라서 노출이 많았는데 복부 초음파, 패드로 분비물 확인, 회음부 삭모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모분들이 학생간호사가 여러명 보는 것을 꺼려하셨다. 그래서 예민한 분은 활력징후 측정이나 분만 시 참관을 거부하는 산모분들도 계셔서”

임상에서 기본간호학에서 배운 술기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거나, 간호사가 하는 것을 관찰은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였다. COVID-19로 누적된 피로감과 이직으로 간호사 업무가 바빠서 물어볼 기회를 찾기조차 어려웠다.

“주사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봐서 아쉽다. 예민하신 환자분을 대하는게 어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수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모르는 것들을 여쭙보라고 하셨지만, 선생님들께서 너무 바빠서 자유롭게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병동 밖 이동이 어려워져서 환자 이송 시 다양한 검사실, 처치실 등 병동 외 다른 병원 환경을 많이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3.3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

임상현장은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매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 관찰할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직접 술기를 행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환자와의 라포 형성의 기회를 통해 예비 간호사로의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실습을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3.3.1 이론을 현장의 언어로 체험

실제 이론으로 배운 많은 질병에 대한 간호 중재가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 수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간호사, 인턴 등 여러 직업이 각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진통이 심해서 산모분이 엄청 아파하시고, 그때 수간호사님께서 옆에서 산모분 손도 잡아주고 격려해드리고 힘주기 시행 시 옆에서 도와드리라고 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격려를 해주셨다.”

“수술 전 처치로 환자 동의서 받기, 수술 전 교육(손톱에 매니큐어 제거 확인, 흔들리는 치아 확인 등)을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실제 간호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말투나 행동 같은 부분, 그리고 대처 방법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론에서 배운 술기를 직접해 봄으로써 이해가 쉽고, 기억에 오래 남으며,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 배운 간호과정 수립하는 법도 임상에서 진짜 쓰이는 것을 알았고 전반적인 간호 환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서 배우는 게 훨씬 습득이 빨랐다. 이론과 현장의 모습이 다른 부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론으로 배운 부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토너켓을 묶는 것도 한 손으로 풀기 편하게 묶는 방법을 배웠다. 눈에 보이고 통통한 느낌이 드는 정맥을 잘 선택해서 찌르니까 혈액이 카테터에 뻗었지만 각도가 틀렸는지 혈관을 관통해서 실실했다. 직접 해보니까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었다.”

“AST를 직접 수행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했던 점과 객담으로 호흡곤란이 있던 대상자에게 흡인을 시행하여 호흡양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수행 후 결과를 보며 보람을 느끼고 신기했다.”

“지금까지 그냥 일회성으로 시험만 잘 보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공부해서 머리에 남아있던 것이 하나도 없어 어쩔퐁이 “아, 이게!”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머리에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론은 나무를 보면서 하나하나 머리속에 넣기 바쁘다면 현장실습은 숲을 보는 시야를 갖게 되고 보고 들으면서 저절로 기억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3.3.2 환자와의 교감

임상실습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게 되고 간호사와 환자간의 라포 형성의 중요성이 무엇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환자와의 교류와 교감을 경험해보면서 스스로 간호사라는 직업의 숭고함과 매력을 더

욱 느낄 수 있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 손에 한 번 해봐. 그래야 나중에 간호사가 돼서도 잘 할 수 있지.’ 하고 간호사 선생님 말고 저한테 혈당측정을 맡기셨어요.”

“한 번은 바이탈을 재고 있는데 할아버지 환자분께서 화난 얼굴로 짜증을 내시기에 손을 잡아드리며 ‘짜증나셨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프지 않으려고 수술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며 힘든 마음을 토로하시긴 했지만 내 손은 계속 놓지 않고 위로받는 듯한 모습에 나도 몽클함을 느꼈고, 진심으로 환자분이 빨리 나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 바이탈을 재 드리면서 속 안 좋은 것은 괜찮으시라고 여쭙보면서 마지막에 얼른 나오셔서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분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간호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존경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보호자의 경우 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병동 내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으므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저와 다른 친구 한 명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호자 분을 응급실에 모셔다드렸습니다. 손과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들을 해드렸었는데,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아니지만 보호자도 간호수행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중재하는 경험을 해본 것에서 의미 있었고, 추후에 괜찮아졌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3.3.3 익숙함은 자신감

처음에는 활력징후와 혈당 측정하는 것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키는 것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반복적인 일상으로 익숙하게 됨을 느끼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어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실습 전보다 나아진 자사의 모습을 느끼면서 자신감으로 더욱 임상 실습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보였다. 어떤 일을 해 간호사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익숙해 지다 보니 병원 출근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았고 더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활력징후와 혈당 측정하는 것도 부드럽게 하지 못했는데 나날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시키는 것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다. 스스로 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뿌

듯했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겠다는 마음이짐으로”

“바이탈을 재는 것은 여러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주사기에 약물을 뽑는 것조차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많이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손도 빨라지게 되었다.”

“인계 시에도 첫날의 경우 무슨 소리인지 하 나도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점차 실습을 하면서 주로 쓰이는 의학용어들을 학습하게 되면서 점차 인계가 들리기 시작했다

“cc/hr(mggt), gtt/min, 약물 mix 계산 등 이미 공식은 알고 있었지만 빠르게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처음에 더더서 어려웠는데, 실습 2주차가 되고 나서는 주도적으로 약물 mix도 도전하고, 수액주입속도도 계산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을 도와드렸고 뿌듯했어요.”

3.4 예비간호사로서의 성장 계기

임상 실습을 통해 병원 환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간호사 상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막상 현장에 적용하려고 보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의 부족한 지식으로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었으며, 향후 어느 부서가 적성에 맞을 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3.4.1 현장은 내 미래의 이정표

임상 실습은 간호사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고, 향후 이상적인 간호사상 정립 및 정체성 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태도 및 응급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대처 등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들과 환자분들을 보면서 ‘초심을 잊지말자. 사람을 항상 진심으로 대하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시고 문제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회복을 위해하시는 간호를 보고 공부할 많이 해서 책임감이 있고 똑똑한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는 간호사의 모습을 통해 대충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전문인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PS 수술방에서 콧속에 넣고 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거즈를 12개 꺼냈는데, 집도의는 비경으로 환자의 콧속을 확인했다며 콧속에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는 간호사의 말에 집도의가 환자의 콧속을 다시 확인했고, 조금 전에 찾지 못했던 거즈 2개가 환자의 콧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4.2 적성을 찾아가는 시간

병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실습을 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하여 향후 취업 지원서 작성할 시 도움을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아직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OO병원의 특성 등을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나중에 취업을 위한 준비도 미리 하였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잘 할 수 있을까' 등."

"일반 병동에서는 볼 수 없는 수술실 참관과 분만을 겪으면서 전에 경험했던 병동 실습과의 차이점을 비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입사 후, 가고 싶은 과를 고민할 때 크게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3.4.3 부족함의 성찰

간호사의 간호 수행을 통해 기억이 안나거나 확실하게 알지 않은 내용을 발견하고 이론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특히 기본간호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의학용어 중 실제 병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간호라는 것이 근거에 기반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까하는 두려움도 표현하였다.

"임상 EMR을 보니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근거만 간호과정에 입각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더욱 간호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숙련된 간호는 단순히 신속한 간호를 제공하

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모에게 불편감과 스트레스를 줄여 정서적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숙련된 간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부족함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꼭 채워야겠다고 느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정말 임상 현장에서 적용된다는 점을 직접 겪어보니, 내가 프로페셔널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중에 간호대학생이 인지는 임상실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임상실습 개선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4개의 주제와 12개의 하위 주제도 추출되었다. 4개의 주제는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 '먼지와 같은 존재감',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 '예비간호사로서의 성장 계기'이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에서는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나친 제약의 받으면서 실습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권수혜 등[14]의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의 지속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에 대한 불편함이 드러났으며, 커뮤니티를 통한 대화로 불안과 긴장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COVID-19의 팬데믹 상황으로 병원들은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선배로부터 전수되었던 병원 실습 정보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의존하고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어 불안감은 더 가중되는 상황이 되었다. 감염관리 활동은 COVID-19 확산시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이라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생활방역수칙이므로[15], 실습전 감염 예방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의 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상 실습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실습의 강화를 통해 실습 교육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16].

두 번째 주제인 '먼지와 같은 존재감'에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의 눈치를 보고, 학생으

로 배려를 받지 못한 감정을 느끼면서 실습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대 이하의 사례와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대상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일원이 아닌 귀찮은 존재 혹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낯선 환경에 홀로 방치된 채 바쁘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출퇴근하는 것으로도 지치는 경우도 많이 호소하였다. 힘들게 임상실습을 시작하였지만, 막상 기대와는 달리 학생의 신분으로 볼 수 있는 EMR은 한계가 있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간호사의 처치를 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하고, 간호사실에 머물다가 실습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박현주와 안호자[17]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서 혼란을 경험하며, 무시당하지 않게 질문을 하지 않거나 간호사의 눈을 피해 다닌 등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로부터 귀찮아하는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실습 만족도가 감소할 수 있다[18]. 현장에 배치되어도 환자의 사생활 및 비밀 보장, 안전 보호 등을 이유로 제한된 범위의 직접 간호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1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된 임상실습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 교육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20].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현장실습만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임상현장실습의 대안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임상 수행 능력과 간호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세 번째 주제인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에서 간호대학생은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내실습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환자와의 교류를 통해 간호의 기쁨도 느끼게 되었다. 대상자들은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함으로써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환자와의 접촉으로 이들의 마음을 한층 이해하게 되고, 환자와의 교감으로 간호사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실습인 교내 실습만으로는 임상현장의 분위기나 간호사들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간호를 직접 경험하지 못 할 뿐 아

니라 실무능력 향상을 도출하기도 어렵다[21].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임상현장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 구축이 필요하며, 현장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여러 관계 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주제인 '예비간호사로의 성장 계기'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래의 간호사상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였다. 이희선과 임정혜[22]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후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이론교육시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임상 실습시 성찰일지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성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효과적인 디브리핑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간호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전략이다[23]. 간호대학생이 예비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의 모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상황 중에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경험을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COVID-19로 심화된 심적 부담감', '먼지와 같은 존재감', '임상현장만의 매력 발견', '예비간호사로의 성장 계기'의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 실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임상실습전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교수자·학습자간 원활한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 실습 중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만한 산학협력을 통해 임상실습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산학협력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상실습에 자아성찰일지 등을 도입하여 디

브리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분석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21). <http://ncov.mohw.go.kr/>
- [2] H. I. Son, G. W. Kim, J. B. Hur. Ch. H. Park(2020).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to Overcome COVID-19. *BDI Policy Focus*, 1-12.
- [3] Y. K. Ha, Y. H. LEE(2021), In COVID-19,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Alternative Clinical Practicum,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 989-1006.
DOI:10.22251/jlcci.2021.21.2.989
- [4] Korea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 A B O N) (2 0 2 2) . <http://www.kabone.or.kr/reference/refRoom.do>
- [5] E. A. Flott, L. Linden(2016). The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 nursing education: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72(3), 501-513.
DOI:10.1111/jjan.12861
- [6] S. S. Hong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369-377.
- [7] P. Paliadelis, P. Wood(2016). Learning from clinical placement experience: Analysing nursing students' final reflections in a digital storytelling activit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 39-44.
DOI:10.1016/j.nepr.2016.06.005
- [8] S. A. Ahn, E. Y. Jeong, J. H. Gong (2021). A Study on Perceived Stress,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9(1),51-60.
DOI:10.22961/JHCLS.2021.9.1.51
- [9] S. Kwon, Y. Kim, M. Bang, M. Ryu (2022).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57-69.
DOI:10.5977/jkasne.2022.28.1.57
- [10] U. H. Graneheim & B.Lundman (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2), 105-112.
DOI:10.1016/j.nedt.2003.10.001
- [11] S. H. Choi, J. H. Jung, S. H. Jung(2016). Concept and Procedures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1), 127-155.
- [12] H. M. Son(2017).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2(0), 56-63.
- [13] J. S. Kang. (2008).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Korean Critical Journalism. *Journal of Journalism and Information in Korea*, 43, 81-113.
- [14] S. Kwon, Y. Kim, M. Bang, M. Ryu(2022).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57-69.
DOI:10.5977/jkasne.2022.28.1.57
- [15] J. H. Yang Y. J. Lee(2020). Pandemic Experience of Infectious Diseases of Nursing Students : Targeting non-confirmed COVID-19.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6), 85-98.
DOI:10.22678/JIC.2020.18.6.085
- [16] D. H. Seo, S. J. Kim(2020). The Effect and

- Development of a Simulation Learning Module based on Schizophrenic Patients Car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9(2): 106-118.
DOI:10.12934/jkpmhn.2020.29.2.106
- [17] H. J. Park, H. J. An(2019).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48-57.
DOI:10.5977/jkasne.2019.25.1.48
- [18] Y. M. Kim, J. M. Park, S. Y. Yoon(2019). A Study on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ter Women Health Nursing Clinical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8), 373-385.
DOI:10.35873/ajmahs.2019.9.8.033
- [19] Y. Kim, J. Kim, H. Kim, S. Park, S. So, B. Jung, E. Choh, S. Lee, J. Kim(2017). Opinions and perceptions on allowing nursing students' practice among inpati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4(1), 10-20.
DOI:10.16952/pns.2017.14.1.10
- [20] H. You, B. Yang (2021). The Effects of Virtual Reality Simulation Scenario Application on Clinical Competen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Nursing Performance 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9), 116-126.
DOI:10.5762/KAIS.2021.22.9.116
- [21] Y. E. Jang, K. S. Han(2021). Online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in COVID-19 Situation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8), 702-714.
DOI:10.5392/JKCA.2021.21.08.702
- [22] W. S. Lee, J. H. Lim (2021).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5), 479-488.
DOI:10.14400/JDC.2021.19.5.479
- [23] E. S. Ji, M. S. Son(2022). Analysis of Reflective Journaling after Nursing Simulation on Children with Enterit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3(2), 568-577.
DOI:10.5762/jKAIS.2022.23.2.568

홍은희(Eunhee Hong)**[정회원]**

- 1990년 3월~1993년 2월 서울여자간호대학 졸업,
- 1997년 3월 ~ 1999년 8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2014년 3월 ~ 2017년 2월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여성건강, 병원 안전, 마케팅
- E-Mail : ehhong@snjc.ac.kr